"마스크, 노마진 · 입고즉시 판매 등 원칙에 따라 유통"

박영선 장관 "자발적 상생협력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가능"

공적판매처 납품으로 기존 계약 위반 '우려'…"해법 논의 중"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이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공적 판매처에 납품하는 마스크를 '5가지 원칙'에 입각해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쇼핑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영쇼핑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영쇼핑과 마스크 공급기업 간의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힘을 모은 착한 기업과 자상한 기업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이러한 자발적 상생협력 노력이 모이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영쇼핑은 '공영'이라는 가치를 발휘하도록 너무 애쓰고 있다"며 "또 다른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현재 노마진 판매 계획 세우고 있다. 정리되는대로 '공영'의 가치에 따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영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공적 판매처로 선정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어 최창희 대표이사는 '공영쇼핑의 마스크 판매 5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마진 판매' △수급안정화를 위한 입고즉시 '매일 방송 진행' △전 연령층 구매를 위해 '상담원 · ARS 자동전화' 주문 △일시 쏠림 방지를 위해 '방송 시간 미고지' △직원 및 관련자 구매 제한 등 5가지 원칙을 지켜 게릴라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현재 모든 국민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여러분(마스크 업체)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영향으로 마스크 업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를 해야되는 부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이미 체결된 납품 계약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마스크 제조업체가 현재 50% 이상 공적 판매처에 납품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곳에 납품할 물량을 공적 판매처로 돌려야 한다. 이미 대부분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공장을 풀 가동 중인 상황이어서 추가로 생산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기존 납품 물량을 줄이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반대로 50%를 공적 납품처에 공급하지 않으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며 "식약처 중심으로 구성된 TF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마스크 수출도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0시부터 시행 중이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을 비롯해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를 뜻한다.

이날 협약식은 노마진 마스크 추가 공급에 대한 홍보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공영쇼핑이 주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씨앤투스성진 △화진산업 △삼성전자 △도레이첨단소재 등이 함께했다.

'씨앤투스성진'은 마스크 제조기업 중 가장 먼저 노마진 판매 방식에 참여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공급 수량을 100만개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하춘옥 씨앤투스성진 대표이사는 "현재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진산업'은 삼성전자와 정부의 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4만개에서 10만개로 2배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이런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마스크 100만개를 노마진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현철 화진산업 대표이사는 "작은 중소기업인지만, 단기간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 등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했다"며 "직원들 뜻 모아서 노마진 100만개 공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지원 외에도 필터 부족으로 마스크 생산 차질을 겪고 있던 화진산업에 도레이첨단소재를 연결해 줬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마스크 필터를 긴급 생산해 화진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상암동 공영쇼핑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발적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귀농가구 5년차 평균소득 3895만원, 귀촌 4200만원

10명 가운데 6명은 귀농 · 귀촌생활 '만족'

귀농 5년차 가구의 평균소득은 3895만원, 귀촌은 4200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 부족으로 인해 귀농 가구의 절반 정도는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일용직 노동을 하는 등 본업 외의 경제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귀농 · 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식품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됐으며 조사대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귀농(2081가구)하거나 귀촌(2086가구)한 총 4167가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p)다.

귀농 · 귀촌 가구들은 4~5년차에 접어들어 이전의 소득을 회복했다.

귀농 전에는 평균 가구 소득이 4400만원이었지만 귀농 1년차 가구소득은 2828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어 2년차가 3257만원, 3년차 3303만원, 4년차 3794만원이었다. 5년차도 귀농 전 가구소득의 88.5%인 3895만원이었다.

이 때문에 귀농 가구의 48.6%는 소득 부족 등을 이유로 직장취업(24.6%), 농산물 · 가공식품 직접 판매(23.8%), 임시직(21.9%), 자영업(17.9%), 비농업부문 일용직(12.7%), 농업 임금노동(10.0%) 등의 경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귀촌 가구는 사정이 조금 낫다. 귀촌전 평균 가구소득은 4038만원으로 4년차에는 귀촌 이전의 소득 수준으로 올라섰다. 연차별로 따져보면 1년차 3279만원, 2년차 3606만원, 3년차 3635만원, 4년차 4058만원, 5년차 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생활비는 크게 낮아졌다. 귀농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 이전이 282만원이었으나 이후에는 201만원으로 낮아졌다. 귀촌가구 생활비도 259만원에서 213만원으로 줄었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은 귀농 · 귀촌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매우만족 · 만족) 응답은 귀농 57.8%, 귀촌 67.0%였다. 보통은 귀농 34.9%, 귀촌 30.5%였다. 불만족은 귀농 7.3%, 귀촌 2.6%였다. 주요 불만족 이유로는 귀농은 영농기술 · 경험부족(28.5%)과 자금부족(27.8%)을, 귀촌은 자금부족(43.3%)과 영농기술 · 경험부족(30.0%) 등을 꼽았다.

귀농 · 귀촌 10가구 가운데 7~8가구는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했다.

귀농을 택한 이유는 자연환경(28.6%), 농업의 비전 · 발전 가능성(26.4%), 가족 생활(10.4%) 등이었다. 특히 30~40대에선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 응답(30대 46.3%, 40대 39.0%)이 가장 많았다. 반면 50~70대는 '자연 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50 · 60대 34.3%, 70대 이상 37.5%)이 가장 높았다.

귀촌의 경우는 정서적 여유(21.2%), 자연환경(19.3%), 저렴한 집값(13.6%) 순이었다.

귀농준비에는 평균적으로 25.1개월이 소요됐다. 귀농 · 귀촌 관련 정보를 주요 획득하는 경로는 가족 또는 지인이었다. 귀농 27.3%, 귀촌 41.7%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보 획득의 어려움을 꼽기도 했다.

앞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내놓은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보완 ·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만 40세 미만 청년 1600명을 신규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지원한다. 농어촌 보건 · 복지, 교육 · 문화, 정주생활 여건 등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51조원도 투융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귀농귀촌 실태를 반영한 면밀한 정책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1

中 수입 막히자 물가도 '도미도' 인상

식자재 수급 불안정…베트남 · 미얀마로 선회 추진

지난 25일 서울의 한 식자재 마트. 반찬 판매대엔 중국산을 주원료로 쓰는 깻잎 · 김치 · 무말랭이 · 간장알마늘이 깔려 있었다. 특이한 것은 평소에 쉽게 볼 수 있었던 중국산 김치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트 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최근 가격이 오르자 냉장고에 깔면 순식간에 팔려나간다"고 말했다.

◇ 중국산 김치 가격 치솟자 대체 반찬류도 들썩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식탁 물가가 치솟고 있다. 현지 공장 가동과 물류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산 가격이 오르는 모양새다.

특히 한국 식탁을 점령한 중국산 김치 가격 상승세가 매섭다. 불과 2~3달 전 1만원(10kg) 안팎 가격이 지금은 최대 1만5000원까지 올랐다. 시중에선 추가 가격 상승을 우려해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는 분위기다.

중국산 김치 가격이 오르자 덩달아 다른 반찬류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김치를 못 찾은 고객들이 대체재로 중국 식자재로 만드는 절임류를 구입하고 있어서다.

이날 찾은 식자재 마트에서 김치뿐 아니라 중국산을 주재료로 쓰는 절임류 반찬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이중 양념 깻잎(4kg)은 1만500원, 간장알마늘(4kg)은 1만9500원에 팔리고 있었다.

마트 직원은 "중국산 김치 재고가 부족하긴 처음"이라며 "다른 반찬도 두 달 전과 비교해 5~10% 비싸졌다"고 설명했다.

◇ 미얀마 · 베트남으로 선회…"국내산 대체도 검토"

중국산 가격 인상이 국내 농수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채소류 상당수가 1년 전과 비교해 대폭 올랐다. 국내 수급 불안과 소비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격 인상은 코로나19 영향이라는 데에 이견은 없다.

특히 배추 · 깻잎 · 미나리 등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채소류에서 가격 인상 분위기가 두드러졌다. 이중 깻잎(2kg) 현재 도매가격은 2만3750원으로 하루 만에 11.8% 올랐다.

중국발 도미노 가격 인상 불똥은 급식 업체로 튀고 있다. 급식업체는 주요 메뉴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반찬을 중국산으로 조리한다. 당근 · 나물류는 중국산을 활용해 단가를 낮춘다.

반면 메인 반찬에 쓰이는 고기류 등에 단가 책정을 높이는 방식이다. 문제는 중국산 식자재 수급 불안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급식업체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지만, 유통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확산에 광주 운수업계 승객 '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의 운수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호고속은 여행객이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광주 고속버스터미널(유 · 스퀘어) 탑승객 기준으로 지난 1월11일 2만4827명(고속버스 1만870명 · 직행버스 1만3957명)이 버스를 이용했다.

설날 연휴가 낀 지난 1월25일에는 2만5011명(고속 1만2914명 · 직행 1만2097명)이 유 · 스퀘어에서 다른 시도를 오가는 등 지난 1월 토요일 버스 이용객은 평균 2만3535명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광주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버스 이용객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첫 토요일(8일)에 유 · 스퀘어 이용객은 1월 평균의 55.8% 수준인 1만3135명으로 곤두박질쳤다.

광주송정역과 광주역 등 기차로 광주를 드나드는 시민 수도 크게 줄었다.

마스크 언제 들어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26일 서울 한 마트에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판매를 기다리며 줄지어 앉아 있다.

기아차, 도심형 크로스오버 '엑씨드' 폴란드 올해의 차 선정

기아자동차는 25일 '엑씨드'(XCeed)가 폴란드에서 2020년 '올해의 자동차'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엑씨드는 유럽 전략 모델인 '씨드'의 도심형 크로스오버 모델로 지난해 하반기 출시됐다.

엑씨드는 지난 12개월 동안 폴란드에서 출시된 50대의 차량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엑씨드의 다양한 기능과 안전성, 드라이빙 다이나믹스, 인체공학적 설계 및 경제성을 높게 평가했다.

고효율의 가솔린 터보 및 디젤 엔진 외에 2분기부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도 출시될 예정이다.

롯데제과, 봄철 신제품 5종 출시

롯데제과는 봄 시즌을 맞아 몽쉘, 초코파이, 칸쵸 등 주력 상품에 '딸기'를 입힌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제과가 선보인 신제품은 △몽쉘 딸기 생크림 케이크 △초코파이 스트로베리&치즈 △칸쵸 딸기요거트 △카스타드 카카오베리 △롯샌 딸기 5가지다.

몽쉘 딸기는 생크림 속에 논산 딸기로 만든 잼을 넣었다. 카스타드 카카오베리는 밀크 크림 안에 베리젬을 넣은 점이 특징이다.

롯샌 딸기는 쿠키 사이에 딸기 크림을 넣어 특색을 살렸다. 초코파이 스트로베리&치즈는 치즈 맛이 나는 파이 속에 딸기 쿠키칩을 듬뿍 넣었다. 칸쵸 딸기요거트는 비스킷 속에 초콜릿 대신 딸기 요거트 크림이 들어갔다.